



우주, 당신을 기다립니다!

2009 세계 천문의 해



IYA 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기존의 별 축제를 벗어나 대중의 흥미를 끄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한 캠퍼스 별 축제 "유니버설 페스타"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 6월 1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선동 소재의 부산대학교에서는 이번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엿보기도 하자.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 한국-이탈리아 특별 기념행사

지난 6월 11일, 세종대학교 우주구조와 진화 연구 센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 천체망원경 400주년을 맞아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 한국-이탈리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 세미나에서 이탈리아 로마대학교 콘스탄티노 시지스몬디(Constantino Sigismondi) 교수는 "교황 실베스터 2세와 세종대왕의 업적", "갈릴레이와 유럽 천문학의 전환기"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 초청강연을 했으며, 연세대학교 나일성 명예교수는 "갈릴레이 이전의 동양천문대"에 대해 소개했다.

6월의 캠퍼스 별 축제 "유니버설 페스타"

IYA 2009 전국 대학생 기획 위원회(UPC : Undergraduate Planning Committee)는 대학생의 자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결집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모두가 필요성만 인식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과학대중화의 가능성을 펼쳐 보임과 동시에, 대학생들의 열정과 한국인의 어린 꿈속에 잠들어 있는 우주를 깨우기 위해 "Universal Festa 2009"를 기획한 것이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는 맨홀뚜껑을 블랙홀로 표현했고, 우주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영상전시회를 열었으며, 기존의 천체사진 전시의 틀을 깨고 암실에 전시한 후 직접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찾는 재미를 더했다. 방명록은 깃발모양으로 만들어 달에 꽃음으로써 우주여행을 마무리 짓도록 기획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우주와 먹을거리를 연관시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했다. 즉, 빵튀기로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고, 헬륨풍선으로 우주의 팽창을,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별 탄생(star formation)에 패러디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과 우주의 신비를 소개했다. 그 밖에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프리 허그(free hug), 프리 핑거(free finger), 포토 존, 닥스 게임, 댄스 동아리 공연, 별 카페, 북 카페, 행성 귀걸이 만들기, 별 T-셔츠 만들기, 별 낚시 등 대학생들만의 신선하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 별 관측, 천체사진 전시, 돛자리에 누워 별자리 찾기, 이동식 천체투영관 관람, SF 영화 상영, 망원경 조립 이외에 참가자가 천체사진을 직접 촬영해 볼 수 있는 실습시간도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유니버설 페스타"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모금함을 설치했으며, 월드비전 코리아

를 통해 모금 액 전액을 지구 반대편의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동네 별이 떴다



부산과학기술협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생활과학교실과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이다. 낮 시간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온을 만나다'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저녁 시간에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늘 밤 하늘엔 무슨 일이 있을까'를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대형 에어돔을 설치하여 천체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밤하늘의 별자리를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찾을 수 있는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관람객들은 영상을 통해 익숙한 별자리를 먼저 본 뒤에 어두워진 밤하늘을 관측했다.

지난 6월 8일,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원장은 '우리 동네 별이 떴다' 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세상, 별과 우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천체관측 행사에 참여해 초등학생들에게 천체망원경의 원리와 관측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토성 테가 곧 사라진다

2009년 6월 현재, 지구에서는 토성 테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올라다보고 있다. 그러나 올 초가을에는 테를 측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나타나며(9월 4일), 그 이후 우리는 토성 테를 위에서 내려다보게 된다. 토성 테의 지름은 28만 km에 달하지만, 두께는 1km에 지나지 않는다. 테가 15년에 한 번 사라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은 CD를 측면에서 볼 때 가는 선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유다. 2009년 6월 중순, 토성은 해진 직후 서쪽 하늘 높이 밝게 빛나며, 일반인도 소형 천체망원경으로 테를 감상할 수 있었다. 토성은 매일 조금씩 서쪽으로 움직여 8월에는 태양과 가까워지며, 테를 이루는 평면이 시선방향과 일치하는 9월 4일에는 테를 전혀 볼 수 없다. IYA 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에 디지털카메라, 또는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토성 사진을 응모 받는다. 우수작 10편을 선정해 공식 홈페이지(www.astronomy2009.kr)를 통해 발표할 것이다.

7월 2009 세계 천문의 해 프로그램 알림

프로그램	개요	장소 및 일정
천문학, 책으로 알린다 도서관 방문 프로그램	천문학 책을 주제로 책, 자자와 관객들이 소통하는 프로그램	- 사천도서관 - 7월 4일(토) - 연시 : 청령영
별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	천문학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병원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지지를 기대하는 프로젝트	- 국립암센터 - 7월 6일(월)
독후감/그림 특별이벤트	초등 중학생 대상으로 우수 독후감 그림을 모집하는 이벤트	- 7월 6일(월) ~ 8월 15일(토) - 공모주소 : iya2009@kasi.re.kr
Music from Outer Space 별 음악회	스페이스 뮤직 연주와 천체영상을 결합한 공연 이벤트	- 국립천문과학관 천체투영관 - 7월 18일(토)
부산국제천문대학생협회 학생교실	부산에서 개최하는 영화제의 '환상영화학교'의 대중공개강좌와 천체사진 전시회	- 경기 아트홀 공연장 - 7월 17일(금) ~ 7월 19일(일)
별 태양을 삼킨다	개기일식 전 과정을 국내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공동으로 생중계하는 이벤트	- 보현천문대, 양구국도정중앙천문대 제주서귀포천문대, 부산 해운대, 서울 - 7월 22일(수)
천문학 영화에 빠진다	우주관련 SF 영화를 주요 테마로 상영하는 프로젝트	- 대전문화산업진흥원 - 7월 24일(금)
별이 흐르는 밤 천체사진 전시회	천체사진가 권오철 씨가 촬영한 산과 바다, 찬란한 문화유산과 별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담은 천체사진 전시회	- 예천천문과학관 - 7월 1일(수) ~ 7월 19일(일) - 대전시민천문대 - 7월 20일(월) ~ 8월 2일(일)
기우에서 보는 우주 (FETU) 천체사진 전시회	행성과 혜성, 별, 은하 등 우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프로젝트	- 순천민천문대 - 7월 1일(수) ~ 7월 26일(일) - 청양청림산천문대 - 7월 21일(화) ~ 8월 5일(수) - 의정부과학도서관 - 7월 27일(월) ~ 8월 3일(일)

